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 외식·조리 전공 -

한예정¹⁾ · 이종호[¶]

경성대학교 외식서비스경영학과[¶]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 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

Yae-Jung Han · Jong-Ho Lee

Dept. of Food Service Management, Kyung S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To do thi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and analyzed using SPSS18.0 program.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values of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ining and culinary education have effects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In particular, pragmatic valu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social recognition and curriculum factors are very significant for students to make career decisions.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it's necessary to teach sound values so that they can build self-esteem value. Also, it's essential to organize subject contents and curriculums in which theory and practice are allocated properly so that students can be interested in their majors and have new experience as well as the community's right recognition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ining and culinary education and their active interest as the study suggests.

Key words: Major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Value, Major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Career Maturity Inventory

I. 서론

현대에 이르러 상이한 문화권과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제도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를 가속화시키고,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惹起)시키고 있다.

Yi JH(2000)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권위주의적 가치관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숙명적 가치관에서 정복 지향적 가치관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 대립하는 두 가치관 사이에서 혼

1) 한예정, 경성대학교 외식서비스경영학과 박사과정

¶ 이종호, 010-5641-0138, johlee@ks.ac.kr,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혼동, 그리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해진 사회 속에서 전공이나 진로선택 시 개인의 특성이나 가치관이 무시된 채, 고소득 직업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와 고용불안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다.

한편, Kim HM · Jang HG(2002)은 우리나라 전문대·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적성, 흥미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Sullivan, B. A & Hansen, J. C(2004)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직장인 혹은 대학생의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와 일치하는 직업 또는 전공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Lee GM(2008)은 우리나라 상당수의 고교생들이 대학 진학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분야와 개인의 가치관이나 적성, 흥미 등을 탐색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자신의 가치관이나 적성, 흥미가 전공과 불일치할 경우, 대학생중에 있어서 진로를 탐색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전공학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혼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특히, 대학생중에 있어 전공불만족은 학업부적응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하여, 대학시기에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인 진로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태도 및 행동 등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해 취업에도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의복행동(Jeong HY 2000; Kim H 2003)이나, 생활양식(Han SC · Kim YH 2003; Kim YM 2008), 학업성취도(Jeong HS 2000), 소비행동(Kim CM 1996) 등에 관한 연구로서, 가치관과 전공만족도, 진로성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단지,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HY(2009)의 연구만 있을 뿐,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 외식산업계의 주역이 될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주된 가치 지향성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도와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적성, 흥미에 맞는 올바른 전공과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치관

1) 가치관의 개념과 선행연구

가치관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철학에서는 신적인 차원의 절대적인 것으로, 문화인류학에서는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사회학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념이나 이상으로, 인류학에서는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여러 문화권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이용되고,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행동과 태도, 사회, 문화 및 개인의 진로나 직업, 가정생활, 대인관계 등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 판단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Jeong BM(1992)는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가치관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가치관은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고 더 일반적인 행동장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Jeong HS(2000)은 가치관의 개념을 “인간 행동을 특정지우는 것으로 인간이 바라보는 사물이나 특정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적 개념”으로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과 행동 전반에 있어 각 개인의 지향하는 바와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된 가치관의 개념을 살펴보면, 가치관은 “인간 행동을 특정 짓는 인간이 바라보는 사물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적 신념(Gee YG 2002)”으로, “인간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인간행동을 조직하고 방향을 결정해 주는 규범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행동이나 태도의 목표 내지 기준이 되는 것(Jeong HY 2009)”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지닌 태도와 가치관은 미래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Koski, L. K & Subich, L. M 1985), 그중에서도 가치관은 어떤 현상의 타당성과 적절성 및 중요성을 판단하는 인지적 기능과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탐미적 기능, 행동의 결과를 검토하는 도덕적 기능,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을 선택하며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an S C·Kim YH 2003)고 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치관 측정요인을 살펴보면, Jeong HY(2000)은 가치관을 ‘미래지향적 가치관-현재지향적 가치관, 과업 지향적 가치관-집단중심적 가치관, 자기

중심적 가치관-타인중심적 가치관, 성취지향적 가치관-사교지향적 가치관’으로 분류하여, 가치관과 학업성취도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치관은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고, Park HY et al(2005)은 가치관을 ‘개인주의 가치관과 집단주의 가치관’으로 분류하여, 가치관과 의복 행동 및 의복구매 행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치관은 의복구매행동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YM(2008)는 가치관을 ‘결혼관과 직업관, 정치관’으로 분류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양식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가치관은 생활양식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eong HY(2009)은 가치관을 ‘물질주의적 가치관, 자아존중적 가치관, 관계지향적 가치관, 타인의식적 가치관, 실리주의적 가치관’으로 구분하여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결과 가치관에 따라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에는 유의한 차이와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관의 개념과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치관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 변화하고,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 의사결정 및 선택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 의사결정 및 선택기준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전공만족도

1) 전공만족도의 개념과 선행연구

학생들의 대학 전공 선택은 그 전공의 전망과 특정대학의 학과가 갖는 사회적 인식 등과 함께 재학 중 교육과정이 졸업 후의 진로와 연계되어 있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특성이 잘 부합하는가를 파악한 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전공은 한 개인이 어떤 자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론적, 실제적인 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서,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만족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로부터 제공 받는 교육적 요소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결정짓게 한다.

Ha HS(2000)은 전공만족을 학과만족에 대한 개념으로 하여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정의하였고, 전공만족은 자신의 기대와 직업준거 집단과의 비교 등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Kim MK(2001)은 전공만족을 학과생활만족에 대한 개념으로 하여 정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의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Seo MH(2011)는 전공만족도의 개념을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서 현재 자신들이 전공하고 있는 전공과목과 전공에 대한 미래 전망 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Wallace, G. R & Walker, S. P(1990)는 전공만족도를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결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하였으며, 반면에 진로선택에 있어 자율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은 진로성숙도와 대학생활 적응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Lee KH · Kwon JM 1996)고 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치관 측정요인을 살펴보면, Han YJ(2008)은 조리전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만족도의 측정요인을 교과과정만족, 사회인식만족, 진로방향 만족으로 구분하여 학년과 성별, 전공유형 따라 전공만족도와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년, 전공유형에 따라 전공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사회인식 요인은 학생들의 전공만족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Park MS(2009)는 미용전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 만족도의 측정요인을 전공선택만족, 사회인식만족, 학교생활 만족으로 하여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측정된 결과 진로의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만족과 직업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ang MH et al(2010)은 대학생들의 전공-흥미 일치도 및 흥미 수준, 흥미유형에 초점을 두고 전공만족도를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으로 구분하여, 전공-흥미 일치도 및 흥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고, 직업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전공만족은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의 교과과정, 사회인식, 진로방향 등과 같은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3. 진로성숙

1) 진로성숙의 개념과 선행연구

진로성숙의 개념은 1955년 Super가 직업성숙을 소개한 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진로성숙에 관한 개념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Super, D. E(1955)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통틀어 진로의 탐색기로 명명하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가치와 욕구, 능력, 흥미를 고려하고 경험을 해 보는 시기라고 하였으며, 진로성숙의 개념을 “성장기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의 한 도달점으로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개인의 발달 정도”로 정의하였다.

Crites, J. O(1961)는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개인의 진로발달의 수준은 검사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Jang SM et al (1991)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Crites, J. O(1961)와 같은 관점에서 자아의 이해와 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자

신의 진로를 계획·선택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정도로 보고, 진로성숙의 개념을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로는 Jang SM et al (1991)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 도구는 학생들이 진로선택에 있어 태도와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해(성숙해)있는가를 진단·기술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태도 검사와 능력 검사로 구분하여 진로성숙도를 측정한다. 태도 검사는 독립성, 계획성, 결정성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 검사는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선택, 의사 결정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rasper, T. H & Omving, C. P(1976)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및 능력, 흥미 등과 좀 더 일치하는 전공 및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과 자기 조사에 관한 활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성별과 학년, 전공,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Lee KH·Han JC 1998; Sim ES 2003; Han YJ 2008),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Kim HJ 2007; Han YJ

2008; Jeong HY 2009), 가치관의 명료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보다 성숙된 진로태도를 보인다(Gee YG 2002)고 하였다.

이러한 진로성숙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진로성숙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태도, 지식, 기능도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성숙과 관련된 주요변인들은 개인의 가치관이 나 흥미, 성별, 학년, 지능과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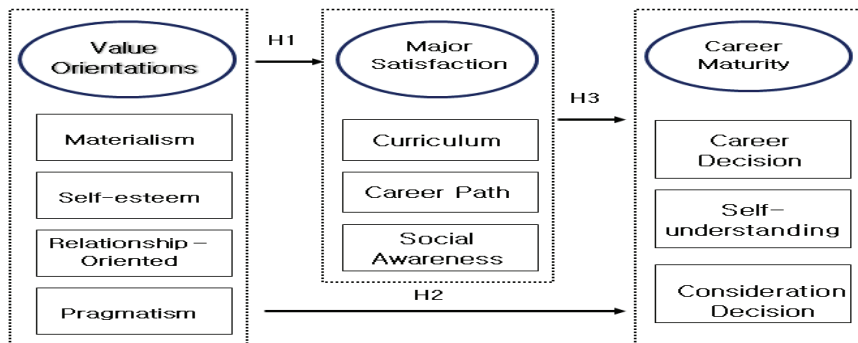
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주된 가치 지향성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성숙에 도움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Fig. 1>을 도출하였다.

H 1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1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교과과정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방향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H 1-3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사회인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1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2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자기자신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3 :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의사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 :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1 :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2 :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자기자신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3 :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의사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가치관

본 연구에서의 가치관의 정의는 가치관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행동이나 태도, 의사결정 및 선택기준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 변화하며,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 및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 의사결정 및 선택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가치관에 대한 측정도구는 본 연구대상인 ‘외식·조리전공 대학생’과 가장 관련성이 높고, 가치관 측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미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치관을 측정한 Jeong HY(2009)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가치관을 측정하였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본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공만족도를 정의한 Ha HS(2000)의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으로 정의하였다.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는 본 연구대상인 ‘외식·조리전공 대학생’과 가장 관련성이 높고, 전공만족도 측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조리전공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만족도를 측정한 Han YJ(200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전공만족도를 측정하였다.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 한국교육개발원의 Jang SM et al (1991)이 정의한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정의하였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Jang SM et al (1991)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이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진로를 선택, 결정해야 하는데 초점을 두어, 태도영역인 진로결정성과 능력영역인 자기자신이해, 의사결정성으로 구분하여 진로성숙도를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부산지역 외식·조리전공 대학교에 재학 중인 1,2,3,4학년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1월 25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8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많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1부를 제외하고 총 359부로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주요구성 내용은 가치관과 관련된 요인 항목으로 14문항,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요인 항목으로 11문항, 진로성숙과 관련된 요인의 항목으로 12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여 이 문항들을 5점 척도(Likert Scale)로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130명(36.2%), 여학생은 229명(63.8%)로 여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년구성으로는 1학년이 113명(31.5%), 2학년이 97명(27%), 3학년이 87명(24.2%), 4학년이 62명(17.3%)로 1학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유형에서는 외식경영전공이 209명(58.2%), 조리전공이 150명(41.8%)로 나타났으며,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한달 용돈은 200,000원 이하가 212명(59.1%), 200,001~300,000원은 85명(23.7%), 300,001~400,000은 39명(10.9%), 400,001원 이상은 23명(6.4%)로 200,000원 이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20세 이하가 110명(30.6%), 21-23세가 148명(41.2%), 24-26세가 94

명(26.2%), 27세 이상이 7명(1.9%)으로 21-23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치관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하여 직각회전인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과정에서는 Eigen value를 기준으로 1보다 큰 것들을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평가방법은 Cronbach's alpha 값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 and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0.5보다 크고,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값이 유의적이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Lee HS · LIM GH 2011).

가치관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물질주의, 실용주의, 자아존중, 관계지향 가치관 등 4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물질주의 가치관 (.837), 실용주의 가치관 (.734), 자아존중 가치관 (.698), 관계지향 가치관 (.626)로 나타났다. 전체 요인의 총분산 설명력은 61.187%, KMO값은 0.773, Bartlett's는 1286.989로 나타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Total (%)
Sex	Male	130	36.2
	Female	229	63.8
School years	Freshman	113	31.5
	Sophomore	97	27
	Junior	87	24.2
	Senior	62	17.3
Major	Food service	209	58.2
	Culinary arts	150	41.8
pocket money	200,000>	212	59.1
	200,001~300,000	85	23.7
	300,001~400,000	39	10.9
	400,001<	23	6.4
Age	20>	110	30.6
	21~23	148	41.2
	24~26	94	26.2
	27<	7	1.9

표본의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전공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타당성 검증

전공만족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사회인식 만족, 교과과정 만족, 진로방향 만족 등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사회인식만족 (.808), 교과과정만족 (.795), 진로방향 만족 (.730)으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3.672%, KMO값은 0.837, Bartlett's는 1229.007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4. 진로성숙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타당성 검증

진로성숙도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의사결정성, 진로결정성, 자기자신 이해 등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의사결정성 (.853), 진로결정성 (.811), 자기자신이해 (.676)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1.949%, KMO값은 0.808, Bartlett's는 1606.368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5. 가치관과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물질주의 가치관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r=0.141, p<0.01), 자아존중 가치관과 관계지향 가치관은 (r=0.184, p<0.01), 관계지향 가치관과 실용주의 가치관은 (r=0.221, p<0.01), 실용주의 가치관과 교과과정 만족은 (r=0.279,

<Table 2> Result of the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of values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s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a
Materialistic value	Success and value of life can be judged with money.	.842	2.712	19.373	0.837
	What I have demonstrates how well I've lived my life.	.827			
	More wealth will make me happier.	.794			
	Becoming rich is one of the important aims in my life.	.783			
Pragmatic value	When I buy goods, I purchase practical one than the other which looks good by appearance.	.785	2.233	15.947	0.734
	I buy a product only when I think it's worth buying it for its price.	.759			
	Generally, I control myself in enjoying pleasure in the current life for my future.	.719			
	Generally, I buy only goods which are imperatively necessary.	.660			
Self-esteem value	I have high expectations for myself.	.802	1.884	13.456	0.698
	My opinion is more important than many others' views.	.786			
	I make an investment for my development and growth..	.746			
Relation-oriented value	I feel happy to spend time with others.	.786	1.738	12.412	0.626
	I think human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money.	.726			
	I think I am happy only when other members of the group where I belong are happy.	.719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773		
Bartlett's Sig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286.989		
	Sig		0.000		
	Total cumulative (%)			61.187	

<Table 3> Result of the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of major satisfaction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s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sa
Social awareness	Probably, my parents are proud of the department where I belong.	.816	2.546	23.141	.808
	My department (major) is one which is worthwhile to go.	.780			
	Probably, many people want to enter my department.	.775			
	My department is one of popular departments in my view.	.747			
Curriculum	Educational contents of my major are selected and organized in such a way that each individual can have new experience.	.828	2.477	22.521	.795
	I feel interested in course contents of my major.	.778			
	The curriculum of my major has properly allocated theory and practice.	.732			
	For my major, the range of subjects and the time amount are operated properly.	.697			
Career Path	For my major, its areas are so helpful to employment.	.816	1.981	18.009	.730
	For my major, students have been employed in related fields after graduation.	.790			
	Occupational information of my major has been provided well.	.732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837		
Bartlett's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229.007		
	Sig		0.000		
	Total cumulative (%)			63.672	

$p < 0.01$), 교과과정 만족과 진로방향 만족은 $r = 0.276$, $p < 0.05$), 사회인식만족과 진로결정 ($r = 0.361$, $p < 0.01$), 진로방향 만족과 사회인식 만족은 ($r = 0.281$, $p < 0.01$), 진로결정성과 자기자신이

<Table 4> Result of the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es of career maturity

Factor	Measurement items	Factors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sa
Consideration for decision making	I decided on my department choice and career taking my school grades into consideration.	.841	2.770	23.085	0.853
	I decided on my department choice and career taking my aptitude into consideration.	.813			
	I decided on my department choice and career taking my interest into consideration.	.801			
	I decided on my department choice and career taking opinions of my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into consideration.	.778			
Decision making of career	I think I certainly know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870	2.562	21.351	0.811
	I definitely decided my career.	.856			
	I've thought about what I want to achieve through my job.	.686			
	I know very well what I want to do for my job.	.663			
Self-understanding	I know what kind of work I like to do.	.729	2.102	17.513	0.676
	I have my own opinion on what kind of work is worth doing.	.684			
	I know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y personality.	.662			
	I know what kind of work I do well.	.651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808		
Bartlett's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606.368		
	Sig		0.000		
	Total cumulative (%)			61.949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Materialism	Self-esteem	Relationship-oriented	Pragmatism	Curriculum	Career Path	Social Awareness	Career Decision	Self-understanding	Consideration for Decision
Materialism	1									
Self-esteem	.141**	1								
Relationship-oriented	.108*	.184**	1							
Pragmatism	.242**	.204**	.221**	1						
Curriculum	.409**	.182**	.438**	.279**	1					
Career Path	.147**	.226**	.374**	.320**	.361**	1				
Social Awareness	.278**	.200**	.123*	.380**	.322**	.276*	1			
Career Decision	.342**	.288**	.149**	.235**	.281**	.279**	.281**	1		
Self-understanding	.413**	.205**	.203**	.187**	.351**	.317**	.250**	.360**	1	
Consideration for Decision	.401**	.271**	.213**	.240**	.363**	.215**	.339**	.339**	.391**	1

** $p < 0.01$, * $p < 0.05$.

해는 ($r=0.360, p<0.01$), 자기자신이해와 의사결정성은 ($r=0.391, p<0.01$)로 나타나 요인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계지향 가치관은 상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생의 성공과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지향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관계지향 가치관과 교과과정 요인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관계지향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에도 관계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6. 가치관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1) 가치관이 교과과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교과과

정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물질주의 가치관, 자아존중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 실용주의 가치관 등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과과정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계지향 가치관은 $p<0.001$ 에서, 실용주의 가치관은 $p<0.05$ 에서 교과과정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 가치관은 교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33.7%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교과과정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 되었다.

2) 가치관이 진로방향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방향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Table 7>에서

<Table 6>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lues on Curriculu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urriculum	Materialism	.337	.039	7.524	.000	.931	1.074
	Self-esteem	.045	.051	.995	.320	.931	1.075
	Relationship-oriented	.369	.071	8.229	.000	.929	1.076
	Pragmatism	.106	.045	2.314	.021	.884	1.132
		R ² =0.337	Adjusted R ² =0.330	F=45.083	P=0.000		

***p<0.001, *p<0.05

나타난 것처럼 관계지향 가치관과 실용주의 가치관은 p<0.001에서, 자아존중 가치관은 p<0.05에서 진로방향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주의 가치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21.6%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방향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3) 가치관이 사회인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사회인식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Table 8>에 나타난 것처럼 물질주의 가치관과 실용주의 가치관은 p<0.001에서, 자아존중 가치관은 p<0.05에서 사회인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지향 가치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19.3%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사회인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Table 7>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lues on Career Path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areer Path	Materialism	.044	.029	.911	.363	.931	1.074
	Self-esteem	.120	.038	2.463	.014	.931	1.075
	Relationship-oriented	.299	.053	6.129	.000	.929	1.076
	Pragmatism	.219	.033	4.365	.000	.884	1.132
		R ² =0.216	Adjusted R ² =0.207	F=24.329	P=0.000		

***p<0.001, *p<0.05

<Table 8>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lues on Social Awar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Social Awareness	Materialism	.187	.934	3.774	.000	.931	1.074
	Self-esteem	.108	.059	2.173	.030	.931	1.075
	Relationship-oriented	.015	.084	.307	.759	.929	1.076
	Pragmatism	.309	.053	6.089	.000	.884	1.132
		R ² =0.193	Adjusted R ² =0.184	F=21.144	P=0.000		

***p<0.001, *p<0.05

부분채택 되었다.

7. 가치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1) 가치관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치관의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Table 9>과 같다. 분석결과 물질주의 가치관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p<0.001$ 에서, 실용주의 가치관은 $p<0.05$ 에서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지향 가치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2) 가치관이 자기자신이해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자기자신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치관의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자신이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결과 물질주의 가치관은 $p<0.001$ 에서, 자아존중 가치관은 $p<0.05$ 에서, 관계지향 가치관은 $p<0.01$ 에서 자기자신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주의 가치관은 자기자신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21.3%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자기자신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3) 가치관이 의사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의사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치관의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의사결정성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Table 9>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lues on Career Deci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areer Decision	Materialism	.279	.052	5.627	.000	.931	1.074
	Self-esteem	.216	.067	4.358	.000	.931	1.075
	Relationship-oriented	.054	.094	1.094	.275	.929	1.076
	Pragmatism	.111	.259	2.186	.029	.884	1.132
		$R^2=0.192$	Adjusted $R^2=0.182$	$F=20.973$	$P=0.000$		

*** $p<0.001$, * $p<0.05$

<Table 10>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lues on Self-understand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Self-understanding	Materialism	.371	.039	7.590	.000	.931	1.074
	Self-esteem	.119	.051	2.443	.015	.931	1.075
	Relationship-oriented	.131	.072	2.683	.008	.929	1.076
	Pragmatism	.044	.045	.876	.382	.884	1.132
		$R^2=0.213$	Adjusted $R^2=0.204$	$F=23.884$	$P=0.000$		

*** $p<0.001$, ** $p<0.01$, * $p<0.05$

<Table 11>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lues on Considerations for Deci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ideration for Decision	Materialism	.339	.045	7.028	.000	.931	1.074
	Self-esteem	.182	.058	3.771	.000	.931	1.075
	Relationship-oriented	.122	.082	2.533	.012	.929	1.076
	Pragmatism	.094	.051	1.904	.058	.884	1.132
		R ² =0.234	Adjusted R ² =0.225	F=27.009	P=0.000		

***p<0.001, *p<0.05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결과 물질주의 가치관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p<0.001에서, 관계지향 가치관은 p<0.05에서 의사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용주의 가치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23.4%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의사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8.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1)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과과정 요인, 사회적 인식 요인, 진로방향 요인 등 3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독립변수의 모든 요인에서 p<0.01에서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

은 14.4%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2) 전공만족도가 자기자신이해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자기자신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공만족도 3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자신이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분석결과 교과과정 만족과 진로방향 만족은 p<0.001에서, 사회인식만족은 p<0.05에서 자기자신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17.7%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자기자신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3) 전공만족도가 의사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의사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공만족도 3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성숙

<Table 12>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areer Decision	Curriculum	.161	.065	2.953	.003	.816	1.226
	Career Path	.171	.093	3.196	.002	.841	1.189
	Social Awareness	.182	.059	3.446	.001	.867	1.153
		R ² =0.144	Adjusted R ² =0.137	F=19.890	P=0.000		

**p<0.01

<Table 13>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n Self-understand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Self-understanding	Curriculum	.242	.049	4.542	.000	.816	1.226
	Career Path	.197	.071	3.744	.000	.841	1.189
	Social Awareness	.117	.045	2.271	.024	.867	1.153
		R ² =0.177	Adjusted R ² =0.170	F=25.376	P=0.000		

***p<0.001, *p<0.05

도의 하위요인인 의사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결과는 <Table 14>과 같다. 분석결과 교과과정 만족과 사회인식 만족요인 만이 p<0.001에서 의사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방향만족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의사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주된 가치 지향성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성숙에 도움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치관이 교과과정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실용주의 가치관 요인을 제외한 관계지향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관, 자아존중 가치관 3가지 요인 모두가 교과과정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관이 진로방향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 요인을 제외한 자아존중, 관계지향, 실용주의 가치관 3가지 요인 모두가 진로방향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관이 사회인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계지향 가치관 요인을 제외한 물질주의 가치관, 자아존중 가치관, 실용주의 가치관 3가지 요인 모두가 사회인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Jeong HY(2009)와 비교하면,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이다. 그러

<Table 14>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n Considerations for Deci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Regression Coefficient	T-value	Sig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ideration for Decision	Curriculum	.267	.056	5.052	.000	.816	1.226
	Career Path	.053	.081	1.018	.310	.841	1.189
	Social Awareness	.239	.051	4.653	.000	.867	1.153
		R ² =0.190	Adjusted R ² =0.183	F=27.679	P=0.000		

***p<0.001

나 Jeong HY(2009)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은 교과과정 만족과 사회인식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 만족과 사회인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실용주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전공에 따라 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치관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계지향 가치관을 제외한 물질주의 가치관, 자아존중 가치관, 실용주의 가치관 3가지 요인 모두가 진로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관이 자기자신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용주의 가치관 요인을 제외한 물질주의 가치관, 자아존중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 3가지 요인 모두가 자기자신이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관이 의사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용주의 가치관 요인을 제외한 물질주의 가치관, 자아존중 가치관, 관계지향 가치관 3가지 요인 모두가 의사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질주의 가치관’과 ‘자아존중 가치관’은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Jeong HY(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이다. 그러나 Jeong HY(2009)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실리주의(실용주의) 가치관’은 진로결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에 따라 진로성숙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성, 자기자신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 3가지 요인 모두가 진로결정성과 자기자신이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성에는 사회인식 요인이, 자기자신이해는 교과과정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의사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방향 만족 요인을 제외한 교과과정만족, 사회인식 만족요인이 의사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과정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시한 Kim HJ (2007)의 연구와 Han YJ(2008)연구, Jeong HY(2009)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공만족도 요인 중 ‘사회인식 요인’은 학생들의 전공만족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Han YJ(2008)의 연구를 한번 더 검증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가치관은 전공 선택과 전공만족도, 진로성숙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실용주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계발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자아존중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전공만족도 요인 중 사회인식 요인과 교과과정 요인은 진로성숙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과내용과 이론과 실기가 적절히 배분된 교과과정 편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의 자료수집에 있어 부산지역의 일부 외식·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지역적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주된 가치 지향성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성숙에 도움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용주의 가치관은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인식 요인과 교과과정 요인은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아존중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며,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이론과 실기가 적절히 배분된 교과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형만·장홍근(2002). 전문대·대학 졸업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3-69, 서울.
- 장석민·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1991)(RR91-05), 1-112, 서울.
- 정범모(1992). 가치관과 교육. 배영사: 14-28. 서울.
- 이학식·임지훈(2011). SPSS 18.0 매뉴얼. 범문사: 81-390. 서울.
- 김미경(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21-45, 경기도.
- 김용미(2008). 대학생의 가치관이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23-73, 충남.
- 김철민(1996).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행동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60-98, 서울.
- 김현(2003). 남녀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66-69, 서울.
- 김혜주(2007).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41-44. 서울.
- 박명순(2009). 미용전공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54-129, 서울.
- 심은숙(2003).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전공학과만족도 및 학과인기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의 차이분석. 강원대학교, 39-44, 강원.
- 서민화(2011). 고등학생의 전공 학업성취도 및 전공만족도 상하집단 판별요인 탐색. 충남대학교, 5, 대구.
- 이건남(2008). 고등학생의 대학 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개발. 서울대학교, 1-3, 서울.
- 지용근(2002). 대학생의 가치관 명료도가 진로태도성숙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9-21, 서울.
- 정혜섭(2000). 가치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7-13, 서울.
- 정혜연(2000).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치관과의

- 복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54-60, 서울.
- 정희영(2009).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 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63-85. 부산.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2-23, 서울.
- 한예정(2008). 조리전공 고등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14-71, 부산.
- Han SC · Kim YH(2003). The survey of adolescent's valuability: a life view, a family view, a education view and a vocation view. *J Education Research*, 24(1): 55-79.
- Lee KH · Han JC(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67-189.
- Lee KH · Kwon JM(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ecting majors and their achievement in college life. *KyungHee University, J educational research*, 12(1): 95-112.
- Park HY · Kim H · Lim SJ(2005).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based on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29): 103-113.
- Yang MH · Park · MJ · Kim HJ(2010). The Influence of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n course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J Vocational Education Res* 29(2): 137-156.
- Yi JH(2000).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dults: Collectivist and moving toward individualist. *Korean J Psychological Association*, 6(3): 201-219.
- Crasper, T. H., & Omving, C. P.(1976).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occupational plans of high school juniors. *J Vocational Behavior* 9: 43-54.
- Crites, J. O.(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 Counseling Psychology*, 5: 255-259.
- Koski, L. K & Subich, L. M.(1985). Career and homemaking choices of college preparatory and vocational education students. *J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4(2): 116-123.
- Super D. E.(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J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 Sullivan, B. A. & Hansen, J. C.(2004).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of the interest scales on the campbell interest and skill survey. *J Vocational Behavior* 54: 142-157.
- Wallace, G. R & Walker, S. P(1990). Self concept, vocational interests, and choice of academic major in college students, *J College Students* 23(4): 361-367.

2013년 01월 21일 접수
 2013년 02월 24일 1차 논문수정
 2013년 03월 11일 2차 논문수정
 2013년 03월 14일 3차 논문수정
 2013년 03월 16일 논문게재확정